

도심 속 작은 음악회, 휴식이 되다

매달 '푸른길공원 융합페스티벌' 8일 '미디어 맵핑·현악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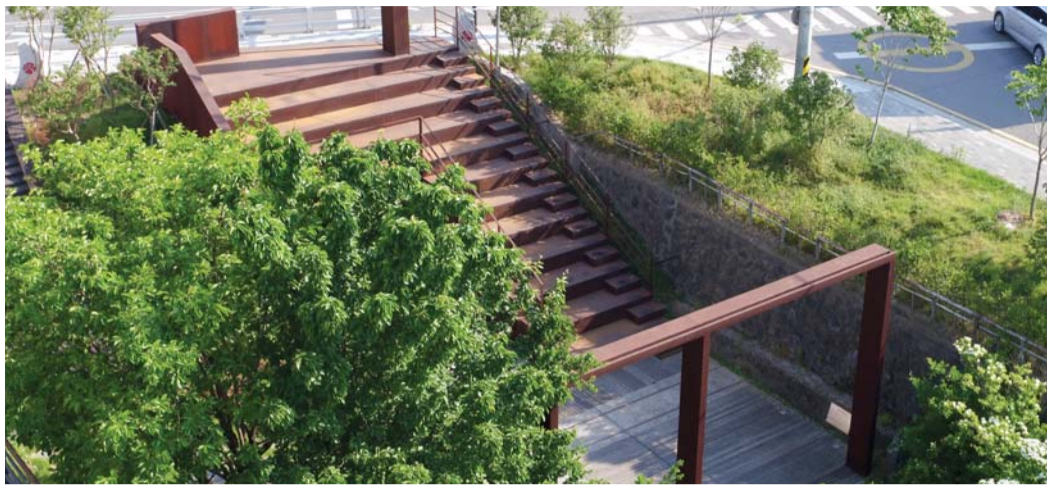
도심 속 자연 쉼터 '푸른길'이 시민들의 문화 현장으로 변신한다.

N뮤지크가 오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총 6회에 걸쳐 순회상 건축가의 광주폴리 I '푸른길 문화센터' 일대에서 '동구마을 문화예술공동체와 함께하는 푸른길공원 융합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지역특화 문화거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오는 8일 '미디어 맵핑과 함께하는 현악 10중주음악회'로 첫 문을 연다.

이날 공연에선 신도원 미디어아티스트와 현대행위예술 퍼포머 '핑크파마'의 미디어맵핑과 현악 10중주가 어우러진다. 아이패드를 활용해 동구 자연을 표현해보는 미디어 맵핑, 요술종이에 동구의 꽃 철쭉 그리기, 동구 심볼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지역자연을 담은 캘리그래피 껍반집 만들기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도 함께한다.

이밖에도 N뮤지크양상블과 바이올린, 오카리나, 해금 등이 협연하는 '퓨전클래식음악회' (7월 6일), 푸른길 문화센터 터널 안에서 미디어 맵핑, 재즈, 현대행위예술퍼포먼스를 펼치는 '재즈&미디어 맵핑의 콜라보레이션 음악회' (8월 3일)가 마련된다. N뮤지크 양상블과 함께 마임, 하모니카, 우쿨렐레, 통기타 등 동구 마을 연주팀이 호흡을



푸른길공원 융합페스티벌이 열리는 광주폴리 '푸른길 문화센터' <광주일보 자료사진>



N뮤지크 공연사진 <N뮤지크 제공>

맞추는 '7080음악회' (9월 7일), 이광혁 호남대 교수의 시낭송과 신도원 미디어아티스트의 미디어 맵핑 등이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 (10월 5일)도 준비돼 있다.

마지막 공연은 11월 2일 N뮤지크가 이민수 내

벗소리 편곡자와 김숙희 N뮤지크 대표의 국악 창작곡을 초연하는 '퓨전국악과 함께하는 마을음악회' 무대로 펼쳐진다.

무료 관람. 문의 010-9989-2955.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Old' & 'New' 오태원 작 'Drops'

7월5일까지 은암미술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7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오래된 시간, 그리고 새로운 공간(The Old Time and New Space)'전을 진행한다.

'오래된 시간(Old Time)'은 전통적 개념의 매체를 활용하거나 전통적 방식으로 자신의 매체를 작업하는 작품을 의미하며, '새로운 공간(New Space)'은 새로운 방법과 재매개를 통해 작업하는 작품을 뜻한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7명의 작가를 초청해 사진, 회화, 설치, 영상 작업을 선보인다.

'진화'를 주제로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작업을 해온 강주리 작가는 일상의 도구인 종이와 펜을 이용해 생태계의 다채로운 모습을 세심하게 그린 펜 드로잉화를 선보인다. 동아시아 문화유산의 가치를 미디어 작업을 통해 보여

주는 김혜경 작가는 도자와 공예 등 시각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고미술에 프로젝션 맵핑기법 등 디지털 기술을 입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공간을 초월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이건희의 'Paper on Paper'는 한국적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한지와 흡입력이 좋아 한지와 잘 부착되는 신문지의 성질에 주목해 제작한 작품이며 이태훈의 'Parallel Space' 시리즈는 장난감 카메라를 이용해 이미지를 겹쳐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 기존 디지털 합성과는 다른 형태의 화면을 만들어냈다.

그밖에 오상조 사진작가는 '당산 나무' 시리즈를 전시하며 오태원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물방울 형태를 조각으로 표현한 'Drops'를 전시한다. 또 이우현 작가는 '사과와 나무' 시리즈 등을 통해 '만져질 수 없는 공간(Intangible space)'을 형상화했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5시.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00여명 학생들의 K-POP 댄스... 광주가 들썩

8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버스킹 시즌 2주차 행사

조이댄스 100여명의 학생들이 펼치는 춤판이 광주 거리를 들썩인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버스킹 시즌 2주차 행사가 오는 8일 오후 4시~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퍼해밍아트'

에서 열린다. 이번 주 행사장은 5·18민주광장 분수대 앞(프린지 A무대), 5·18민주광장 EV 앞(프린지 B무대), 하늘마당(프린지 C무대), ACC 계산입구(프린지 D무대).

프린지 A무대에서는 '조이댄스' 1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6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다채로운 스트리트 댄스 장르를 소개하고 K-POP 스트리트 댄스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이댄스팀은 동방신기 유노윤호, 2NE1 공민지, 카라의 구하라, EXID 혜린,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등 광주 출신 아이돌 스타들을 대거 배출했다고 알려진 학원 '조이댄스 아카데미'의 댄스 그룹이다.

그밖에 '바스키즈 미술학원' 원생 20여 명이 출연해 무용과 미술이 어우러진 퍼해밍 아트(Performance Happening Art) 퍼포먼스 '광주 낮달, 새가 되다' (기획·연출 나선후, 작가 구광모, 안무 박선숙)를 공연하고, '원더매직'의 과학미술 공연, 전통문화예술단 '소리야'의 풍구타령, 수궁가, 아리랑 등 퓨전국악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또 인체 군상의 다양한 조형미를 여러 소재로 표현하는 김동준 작가의 작품과 유지원 작가·임용현 작가의 라이브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문의 062-223-041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CC_R' 하반기 참여자 공모

아시아문화전당,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ACC_R'의 하반기 참여자를 공모한다.

오는 10일까지 모집하는 'ACC_R'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한다. 'ACC_R'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450여명의 창작자, 예술가들이 거쳐 가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창작해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내외의 '아시아문화연구자', '창제작자', '기획자', '디자이너', '아시아 시각 예술 분야 작가' 등 총 5분야의 전문가들을 선발한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연구논문', '쇼케이스 작품', '기획 제안서', '아시아문화디자이너', '문화상품디자인', '시각예술 오픈 스튜디오 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다.

이를 위해 ACC는 숙소와 작업 공간, 창작활동비 등을 제공하며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부 참여자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타 분야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행사 등도 진행된다.

지원방법과 분야별 세부 사항은 ACC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01-402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HUG'

30일까지 LH휴랑갤러리

서양화가 이금주 작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도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1층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끌어안다(HUG)'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담쟁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 작가에게 담쟁이는 세월을 지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학창시절 보았던 담쟁이가 푸른 젊음의 상징이었다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정을 돌보고 그림을 그려오는 시간 동안 담쟁이는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희망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 작가는 겨울을 지나고 환한빛 담배락을 타고 올라가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담쟁이가 서서히 담배락 전체를 푸른 빛으로 감싸는 모습에서 강한 생명력과 위로를 느꼈고 그 감정들을 화폭에 담았다. 자유분방하게 뻗어올라가는 담쟁이와 담배락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며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인물 등도 함께 그려넣어 또 다른 느



낌을 준다.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목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광주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청동회, 조형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말 휴관.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특별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기술부문] 수상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